

슬관절의 골연골 병변에서 자가 골연골 이식술과 관절경적 미세 골절술의 결과 비교

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동철 · 손욱진 · 정승민 · 성민철

목 적

슬관절의 골연골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자가 골연골 이식술과 미세 골절술의 치료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

2003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관절경상 슬관절의 골연골 병변이 있는 20, 30대 청장년층 환자들(평균 32.4세, 27~39세)에서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시행받은 9명 10예와 미세 골절술을 시행받은 12명 1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 평균 나이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군이 31.3세(28~37세), 미세 골절술군이 33.5세(27~39세)였고, 평균 체질량지수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군이 24.4, 미세 골절술군이 24.4로 유사하였다. 수술 후 평균 31.1개월(14~60개월) 추시 후 임상적 결과를 Tegner Activity Score, Lysholm Knee Scoring Scale, VAS(Visual analogue score)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.

결 과

병변 부위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군이 대퇴골 내과부위가 8예, 외과 부위가 2예였고, 미세 골절술군은 각각 6예였다. 자가 골연골 이식술군과 미세 골절술군의 Tegner Activity Score는 수술 전 각각 6.0 과 5.7 이었고, 수술 후 마지막 추시시에는 각각 9.4, 7.9로 자가 골연골 이식술군이 조금 더 우수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. Lysholm Knee Scoring Scale은 수술 전 각각 41.8 과 41.6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후 마지막 추시시에는 각각 96.2, 83.1로 자가 골연골 이식술군이 우수하였다($p < 0.05$). VAS는 수술 전 각각 4.9와 5.1에서 수술 후 마지막 추시시에는 각각 0.3, 0.4로 나타나 통증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. 수술 후 관절운동제한이나 감염 등과 같은 합병증은 없었다.

결 론

활동이 많은 청장년층에서 슬관절의 골연골 병변이 있는 경우에 있어 자가 골연골 이식술과 미세 골절술 모두 치료의 효과가 긍정적이었지만, 자가 골연골 이식술이 조금 더 우수하였다.

색인 단어: 슬관절, 골연골 병변, 자가 골연골 이식술, 미세 골절술